



불화 속의 명 장면 (14)

日 후쿠오카 혼카쿠지 소장 '석가탄생도' (하)

'... 유아독존' 중생 구제 의지 뚜렷



사방 칠보 걸음, 정반왕의 친견 등 정교하게 묘사

사성제와 팔정도 통한 대승불교적 보살정신 표현

'석보상절' '월인석보' 등 훈민정음 창제 목적도 반영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천상천하 유아독존 天上天下 唯我獨尊)”

석가모니가 처음 태어나마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사방으로 일곱 걸음씩 걸으니, 땅에서 연꽃이 저절로 나타나 그의 발걸음을 받들었다. 그리고 오른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왼 손으로 땅을 가리키고 사자(獅子) 두리움을 모르는 웅망한 사자의 목소리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그림4).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어찌 들으면 자칫 오만하게도 들립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개인의 주체성만이 진리’라는 실존철학적 냄새도 풍기는 듯합니다. 석가모니의 첫 말씀.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본 후쿠오카 혼카쿠지(本岳寺)에 소장되어 있는 ‘석가탄생도’에는, 마야부인의 뿔비니동산 방면, 무우수(아쇼카 나무) 아래의 출산, 사방 칠보 걸음과 석가 최초의 사자후, 구룡 육불(浴佛 또는 灌佛, 탄생석 가발을 목욕시키는 의례) 장면, 정반왕의 친견 행사, 탄생에의 찬미와 그 상서로운 징조들이 매우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재에서 논의한 바 있듯이, 본 작품은 조선전기 편찬된 <석보상절>과 <월인석보> 등과 관계있는 조선전기(15세기 후반) 왕실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본 작품은, 석가의 생애 중 가장 기념되는 주요 여덟 장면 즉 팔상도(八相圖) 중

에 석가모니의 탄생을 그린 ‘비랍강생상(毘藍降生相)’에 해당하는 그림입니다. (‘석가가 탄생하니’) 천지가 진동하고 삼천대천세계가 다 밝아졌다. 그 때 사천왕이 하늘 비단으로 안아서 금계 위에 얹고(연재13 그림3 참조) 제석은 천계를 떠받치고 범왕은 불자를 잡고 양쪽에 서서 항을 뿌렸고, 아홉 용이 물을 내려 씻기니, 물이 왼편엔 덮고 오른편엔 차가왔다(연재13 그림1) ... 천룡 팔부가 공중에서 풍악을 울리며 부처님의 덕을 노래부르고 향을 피우며 영광과 꽃비가 섞여 떨어지니(그림5) ... 채녀가 하늘 비단으로 태자를 싸안아 부인을 모셔오니 스물 여덟 대신이 네 모퉁이에서 받들어 모시더라(그림6). 청의(궁녀)가 돌이와 왕께 기벌을 아뢰니가 왕이 사

병을 데리고 등산에 들어가시는데 한 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려우셨다(그림7). <석보상절 발해 인용> 지금으로부터 2600여년 전 음력 사월 초파일날 바로 이 작품에서 벌어지는 것과 같



그림6: 석가탄생을 호위하는 28대신

은 광경들이 펼쳐지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접하는 역사와는 또 다른, 대외적인 사건들로 엮여진 역사가 아니라 대내적인 자아, ‘나는 무엇인가’라는 실존적 근원과 씨름하는 역사의 여명이 밝아왔지요.

석가 ‘탄생계’로서 우리는 보통 앞서 언급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문구에만 익숙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뒤의 문구 “모든 세상이 고통 속에 잠겨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하게 하리라(三界皆苦 我當安之)”, 즉 고통의 바다 속 중생을 구하겠다는 이 커다란 서원에 앞 문구 못지않은 중

요한 의미가 담겨있지 않을까요. 물론 구원의 방법으로 석가가 제시한 것이 사성제와 팔정도이지요. 자신을 스승삼아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중생 모두 건지겠다는 대승불교적 보살정신, 이는 이 작품의 소의경전이 되는 <석보상절>의 서문 첫 구절에 나타난 그 취지와도 같습니다.

“부처는 삼계의 존귀하신 분이라 중생을 널리 제도 하시니(佛爲三界之尊 弘渡群生) 그 무량공덕을 사람과 하늘 다 기리지 못하는 바 됩니다” 이 석가모니의 이두신 업적을 ‘그림으로’ 또 ‘정음(한글)’으로 쉽게 풀이하여 백성에게 널리 알려 모택한 이들을 교화 제도하겠다는 <석보상절>의 편찬 취지는, 민중교화·민중계몽의 취지로 창제된 훈민정음 창제 의도, 한 개의 말이 수천 개 강에 비쳐 세상의 어둠을 밝힌다는 월인천강(月印千江)의 원리와도 일맥상통하는 핵심원리입니다. 민중불교의 진정한 시작은, 이렇게 한글창제와 불경언해사업

을 몸소 시작한 세종과 세조로부터, 불교가 그 어느 시대보다 탄압받았던 송유익불시대, 그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구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구해야겠지요. 그리하여 석가는 29세에 출가하여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의 나이 35세가 되는 해에, 육체적 탄생이 아니라 새로운 ‘정신적 탄생’을 하게 됩니다. 무명에 가리워졌던 자성(自性)이 그 통로를 찾아 밖으로 표출되게 되면 빛을 발합니다.

석가 득도 후, 녹야원으로 첫 설법을 가던 도중, 한 사문이 그의 안색에 광명이 넘치므로 예사롭게 여기지 않고 ‘너의 스승은 누구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석가 왈, “나는 일체에 뛰어나고 일체를 아는 사람/ 무엇에도 더럽혀짐 없는 사람/ 모든 것을 버리고 애욕을 끊고 해탈한 사람/ 스스로 체득했거나 누구를 가리켜 스승이라 하랴/ 나에게 스승 없고, 같은 자 없으며/ 이 세상에 비길 자 없도다/ 나는 곧 자아 최고의 스승/ 나 홀로 정각

이루어 고요롭도다/ 이제 밭을 살하려 가니/ 어둠의 세상에 감로의 복을 올려라”라고 하였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탄생계’의 사자후입니다.

석가는 열반에 들기 전 그의 유명한 마지막 유언에서도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남을 의지처로 삼지 마라. 법(진리)을 등불로 삼고, 법을 스승으로 삼아라. 이 밖에 다른 스승도 의지처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법(自覺 明 法 燈 明), 이 밖에는 그 어떤 편도도 지름길도 없습니다.

석가는 그의 ‘탄생 때’와 그가 ‘깨달은 직후’, 그리고 ‘열반에 들기 전’, 이렇게 세 번에 걸쳐 모두 일맥상통하는 같은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가장 존귀한 나를 스스로 등불삼아,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랍과 같이, 흠방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뽕처럼 혼자서 가라.”

강소연(미술사학자·홍익대 겸임교수)



그림7: 정반왕의 친견 행사

머리에 똑똑!! 한문이 이제 쉬워집니다.

김광식 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드립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한문공부, 이제는 그만!! 체계없는 주먹구구식의 교육방법 등으로 긴 시간을 요하는 기존의 한문 교육을 배격하고,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한문書堂”은 흥미롭고 보다 능률적이고 요령있게 한문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초·중·고·대학생·일반 실무용 한자 (6급 - 1급까지 능력시험 대비)

영어를 모르면 세계의 고아!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의 고아!
17억 한문 문화권의 당당한 도전!
한문을 알면 지구의 반을 정복한다!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한문書堂

한자 고사성어 및 응용한자, 행정용어, 속담 등 1만여 문장 성어 수록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한문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全六券 90,000원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전화 02)737-0695/(02)2004-8219

- ◇ 현대불교신문 -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는 형성과정을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 ◇ 충청투데이 - 체계적인 한문교육이란 무엇이며 예절과 충효문화교육에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 ◇ 동양일보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눈에 속 한땀을 뿜어낼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 ◇ 중부매일 -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 ◇ 이원중 전충북도지사 - 한문책으로서 우리 도를 빛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 ◇ 김중호 전 내부부 장관 - 한문문화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름길을 제시해 주어 경제와 문화가 한층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 범주사 도공스님 - 한문과 불교문화는 밀접한 관계다. 불자들의 필독을 권한다.

